

# 새겨 찍은 시대정신... 오월 예술의 정수 '목판화'를 보다

### '오월예술 2024' 기획 목판화전, 5월 19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민주항쟁도'·'도청앞 분수대에 모인 군중'·'태풍대비' 등 전시

초창기 판화는 복제 수단으로 활용됐다. 그로 인해 '예술'이라기보다는 복제품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미술 장르가 확대되고 도구나 기법 등이 다변화되면서 판화가 발하는 독특한 분위기에 주목하는 이들이 늘었다. 오늘날 판화는 독립된 장르로 확고한 영역을 구축했으며 자료적 특성으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판화 가운데 목판화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녔다. 목판화에 사용되는 나무 종류도 다양하다. 소나무를 비롯해 오통나무, 단풍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지닌 특성을 고려한 작업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목판화 하면 '80년대'를 떠올릴 수 있다. 민중미술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다. 다량의 복제와 현장성, 그리고 시대적 화두가 목판화가 지닌 특성과 맞아떨어졌다.

'새겨 찍은 시대정신'을 주제로 한 오월예술전이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김준기)은 오는 5월 19일까지 '오월예술 2024' 기획 일환으로 목판화전을 연다.

시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목판화 75점을 볼 수 있으며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창작단과 11명의 작가들이 출품했다. 개인 작가로는 김봉준을 비롯해 김억, 김진수, 안한수, 이상호, 이준석, 전정호, 조진호, 홍선용, 홍성담, 홍성민 등 11명이다.

김준기 관장은 "이번 참여 작가들은 민중미술을 이야기할 때 거론되는 작가들"이라며 "주제가 말해

주듯 작가들의 작품에 담긴 시대정신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현재 시립미술관은 560여 점 목판화를 소장 중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연계돼 있어 당대 역사적 기록을 가능할 수 있다.

전시는 크게 두 개 섹션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1부 '형상을 찍어내다-그날'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초점화한다.

무엇보다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창작단의 '도청앞 분수대에 모인 군중'이 눈에 띈다. 옛 전남도청 분수대를 배경으로 열린 집회는 민주화를 위한 열망, 연단에 선 이의 호소, 나부끼는 깃발 등을 담고 있어 역동적이다. 5월 그날의 절박함이 흑백의 대조 속에 선명하게 구현돼 있어 격정적으로 다가온다. 김진수의 '광주민주항쟁도'는 당시 광주의 의분



광주시립미술관은 오는 5월 19일까지 '새겨 찍은 정신'을 주제로 목판화 전시를 연다.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창작단 작 '도청앞 분수대에 모인 군중'

과 절망 등이 압축적으로 묘사돼 있다. 시간이 흘러도 영원히 남을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

의 정신이 투영돼 있다. 이준석 작가의 '만행'은 공수부대원이 쓰러진 시민을 군복으로 무자비하게 가격하는 장면이다. 죽음을 목전에 둔 이의, 아니 이미 죽음이 돼 버린 이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여전히 참혹하다.

2부 '형상을 찍어내다-살'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환기하는 작품들을 보여준다. 경제성장은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했는데 도시빈민, 농촌 문제, 환경파괴, 역사와 민족 등이 대표적이다. 각각의 작품들이 주는 사실성, 현장성은 마치 작품의 배경이 된 장소로 초대받은 듯한 느낌을 준다.

함평 출신인 안한수의 '태풍대비'는 태풍이 몰려오는 시간 파도가 들이치는 해안의 풍경을 역동적으로 묘사했다. 너울거리는 파도 속에서 사력을 다

해 배를 끌어올리는 모습은 말 그대로 빽빽한 '살' 그 자체다. 치밀한 칼질의 반복, 빗살과 파도를 정밀하게 구현한 것에서 작가의 성실성과 장인정신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김봉준 작가의 '통일해원도'를 보고 있으면 절로 어깨를 덩실덩실 추고 싶어진다. 통일을 염원하며 남녀노소가 어우러지는 한마당은 모든 이념과 차이를 넘는 대동세상을 회현한다.

변길현 화에실장은 "목판화는 일반 회화와 달리 나무가 주는 결에 따라 색다른 심미적인 미감을 선사한다"며 "이번 전시는 당대의 시대정신을 가장 생생하면서 더욱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들 위주로 선별했다"고 밝혔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시간으로의 여행'

### 정순이 초대전, 25일부터 우제길미술관

시간은 무엇일까? 아니 시간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는 것일까? 시간은 구체적이면서도 추상적이다. 계수될 수 있는 반면, 실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는 힘들다.

많은 예술가들은 지금까지 시간을 모티브로 자신만의 독특한 창작세계를 열어왔다. 상이한 관점과 어법, 논리가 존재한다. 앞으로도 작가들은 다양한 장르에서 시간을 해석하고 풀어낼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순이 작가가 '시간으로의 여행'을 주제로 초대전을 연다. (우제길미술관 25일부터 5월 6일까지)

동일한 제목으로 형상화한 작품들은 화사하면서도 깊이가 있다. 화사함은 연분홍 등의 색조에서 오는 것이며, 깊이는 청색 등의 색조에서 연유하는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두 종류의 색을 좋아하는 편이다. 전자가 주는 밝음과 따스함, 후자가 환기하는 신비와 편안함 때문일 터다.

작가의 내면에 깃든 시간도 그러하리라 짐작된다. 흑여 머리와 가슴 사이에 드리워진 실체 아닌 실체가 바로 '시간'이 아닐까 싶다. 손에 잡힐 듯 구체적인 반면 한편으로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추

상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그 사이에 드리워진 나비, 새, 꽃이라는 물상의 존재를 넘어 사유와 상상의 영역을 자유로이 넘나든다. 작가 또한 그렇게 구상과 추상의 경계를 왕래하는지 모른다.

'시간으로의 여행'은 그림을 보는 이에게 여행을 떠날 것을 권유한다. 시간처럼 고여 있지 말라는 의미다. 해석의 자유는 갖되 틀에 갇히지 말고 무정형의 시간처럼 자유를 누리라는 것이다.

김영순 미술학박사는 "몇 년만의 개인전, 독특한 작업의 결과물을 전시장에 내놓는 작가의 정성이 캔버스마다 빛을 발한다"며 "깊은 사유의 뒤안길에서 대상의 고유성을 드러낸 작가의 이번 작업이 이

후에 또 어떤 변주곡으로 옮겨갈지 모를 일이다"고 평한다.

한편 국제 여성미술교류협회 대표인 정 작가는 조선대 미술교육과와 동 대학원 미술과를 졸업했다. 무등미술관 등 개인전, 중국 상해아트페어 등 다수의 아트페어, 뉴욕 코리안 아트쇼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광주미술협회장, 광주비엔날레 이사 등을 역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시간으로의 여행'



ACC재단이 새롭게 단장한 어린이 체험관 '아시아로 여행을 떠나요' 공간. <ACC재단 제공>

## ACC 어린이문화원 새단장 '아시아로 떠나요'

### 상설전시관 5개 권역 구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가장 밝은 공간은 어린이문화원이다.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어린이 문화시설로 아이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간 등이 구성돼 있다. 특히 다채로운 체험, 공연 등이 기획돼 펼쳐지고 있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에게는 문화 향유와 힐링 공간으로 손색이 없다.

특히 어린이체험관은 3개의 주제로 한 '자연과 생활', '지식과 문명', '감각과 표현'이 연중 내내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최근 어린이문화원 어린이체험관 상설전시관을 새롭게 단장해 눈길을 끈다.

'아시아로 여행을 떠나요'를 주제로 구성된 신규 전시는 아시아를 어린이들이 주제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이들이 스스로 정보를 찾고 여행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뒀다. 아시아의 구성 국가, 아시아의 문화유적 등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어린이들이 NFC(근거리 무선통신) 티켓을 활용해 아시아 국가로 여행을 떠나거나, 미디어 보드게임을 매개로 아시아 5개 권역의 유산을 즐길 수 있다.

하성국 어린이문화원장은 "ACC 5개원 가운데 가장 인기있는 공간 가운데 하나가 어린이문화원으로 이곳에는 어린이를 위한 특화된 공간과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펼쳐진다"며 "이번 새로운 단장을 계기로 어린이들이 아시아의 문화유산은 물론 특징적인 정보를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공간 구성과 프로그램은 아시아를 보다 폭넓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어린이들 접한 이색적인 체험과 교육은 자녀는 아이들에게는 문화적 감수성은 물론 창의적 사고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지역 농악보존회 '흥겨운 굿판' 펼친다

### 고창농악보존회, 25일~9월

### 광산농악보존회, 27일~10월

지역 농악보존회들이 상설 굿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농악 활성화'에 팔을 걷었다.

(사)고창농악보존회는 '고창농악상설굿판'을 오는 25일부터 9월까지(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마다) 오후 7시 30분에 고창농악전수관 야외공연장에서 펼친다. 인류무형유산이자 고창 7대 보물인 '고창농악 상설굿판'을 볼 수 있는 기회다.

굿판은 14개 읍·면 농악단으로 꾸려진 '고창군농악단연합회'가 매월 색다른 전통 레퍼토리를 들려준다는 계획이다. 부대 행사로 카페와 주막, 플라마켓 등이 열리며 마루체험농장, 내장국악기 불교사, 지음공방 등이 참여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한다.

구제연 고창농악보존회장은 "농악을 매개로 일상 속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굿판'이다"며 "지역인 모두가 함께 즐기는 전통 대축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산농악보존회가 선보이는 2024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사시사철 굿이여'도 이목을 끈다. 오는 27일 오후 2시 광산농악 전수관(하남동)에서 첫 공연을 시작으로 5, 6, 8, 9, 10월(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총 6회 펼쳐질 예정이다.



제17회 '고창한미당'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

<(사)고창농악보존회 제공>

(사)광산농악보존회는 1990년 설립돼 광주지역 농악을 정립하고 전통의 맥을 잇는 '광산농악'을 알리는 활동을 하는 단체다.

대표적인 광주 농악 연행을 즐길 수 있는 이번 공연은 액막이굿을 모티브로 한 '사시사철 굿 공연'을 비롯해 광산농악의 악기별 유래와 전승 과정을 전수자에게 듣는 '광산농악 데다보기(들어다보기)' 등

으로 채워진다. 식전 공연으로 '열씨구' 팀의 사물놀이 공연을 만날 수 있으며 배나, 죽방울, 죽마, 큰기들리기 등 '전통 놀이'도 상시 체험할 수 있다.

광산농악 김지은 홍보담당은 "5월에는 '농악 콘서트', 6월 '도깨비굿', 8월 '만드릿굿' 등이 예정돼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임해철 명예교수, '대한민국문화예술대상' 음악부문 대상

임해철(사진) 호신대 명예교수가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가 수여하는 '제37회 대한민국문화예술문화대상' 음악 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문화예술문화대상'은 문화예술발전과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 예술가의 공적적 활동과 업적을 기리고자 1987년 12월 제정됐다. 예술영역 대상으로 임 교수가 선정됐으며 이 밖에도 지역부문에 신남수(건축·광주), 윤석수(미술·전남)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연세대 성악과와 로마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임 교수는 광주오페라단, 서울시립오페라단, 국립오페라단 및 로마 오페라단 등에서 공연을 펼쳐왔다. 이태리 부셋토 베르디, 레 만프레디 국제



성악공쿠르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호신대 음악학과 명예교수, 광주발성교정협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임 교수는 "이번 수상으로 무대 예술인, 문화행정가와 교수로 '음악의 길'을 걸어왔던 지난 50년 세월을 격려받는 기분이다"며 "수상을 계기 삼아 더욱 예술활동에 정진해 나만의 음악적 견해와 공적적 정신, 예술 식견을 두루 갖춘 원로 예술인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정진하겠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